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청(國新辦)은 10.28(수) “취업 안정 및 사회보험 감면 정책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사부 차관 Li Zhong, 취업촉진국장 Zhang Ying, 양로보험국장 Nie Mingjun 참석

□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 인하 정책성과 소개(Li Zhong)

- 올해 코로나19로 취업안정을 위한 “六保(6개의 보장), 六穩(6개의 안정)”에 최우선에 두고, 취업 우선 정책과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범정부적으로 대대적 추진
-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 결과, 중국의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 1-9월까지 도시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수(城填新增就業)는 898만으로 올해 정부 목표 900만개의 99% 달성. 9월 도시지역 조사실업률도 5.4%로 올해 목표(6% 내외)에 부합
- 취업우선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 지원을 통한 기존 일자리 고용 유지

- 기업 부담 3개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공상) 감면,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고용 및 인턴보조금 등 각종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 실현
- 9월말 현재, 감면된 3개 사회보험료는 9,107억 위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에 따른 절감액은 616억 위안, 사회보험료율 인하(양로보험 16%로 인하, 실업·공상보험료 인하 등 降底費率減收)에 따른 절감액은 2,322억 위안, 실업보험반환 850억 위안, 취업보조금 지원 638억 위안 등 기업지원은 총 누계 1.3조위안(221조 억원 상당)

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고용창출

- 창업담보대출한도 인상, 수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상반기 창업대출규모는 1,72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34.8% 증가
- 또한, 노동자 플랫폼 취업 지원 확대, 유연취업을 저해하는 각종 비용 폐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연취업 활성화 등 정책 추진

③ 농민공, 대졸자 등 중점 계층 취업 보장

- 대졸자의 취업 경로 확대, 취·창업 주간 운영, 지속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졸자 취업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
- 농민공의 도시 취업(外出) 및 현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3분기말 현재 도시취업(외출) 농민공은 1.79억명으로 2분기 대비 200만명 증가, 빈곤노동력 도시취업인원은 2,934만명으로 전년대비 107.5%
- 비자발적(下崗)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실업등기(구직등록) 개시, 원스톱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 9월까지 누계 353만명 실업자 재취업 실현

④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지원

- 직업훈련향상계획(職業技能提升行動)(2019-), 인터넷+직업기능훈련계획(互聯網+職業技能訓練計劃)(2020), 취창업서비스 주간 운영, 대규모 온라인 채용행사, 춘계 채용주간 운영, 백일천만온라인채용(百日千萬網絡招聘), 민영기업 채용주간 등 활동을 통해 누계 천만 일자리 정보 제공

⑤ 취업곤란 계층 지원

- 취업곤란 인원 기준 조정, 공익성일자리 제공, 실업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플랫폼 개통 등을 통해 저소득, 취업곤란 계층 기본 생계 지원

□ 고용상황 및 향후 계획(中央廣播電視總視台央視)?

○ 현재의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一增、一降、一升”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9월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898만명으로 올해 목표 900만명을 사실상 달성(一增)

- 도시지역 조사실업율은 2월 6.2%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에는 5.4%(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높은 수준)까지 하락(一降)

- 노동시장도 온라인 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1/4분기 인력수요가 전년대비 25.9% 급감하였으나,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3분기는 전년대비 1.1% 증가)(一升)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국제 경제 및 무역환경 위축, 경제하방압력 등에 따라 취업환경은 좋지 못했으나, 다음과 같은 성과로 취업사정이 크게 개선

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가 성과를 거두고, 생산이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경제 운영이 개선

② 정부의 전폭적인 감세, 수수료 감면 등 지원지원, 분권화 및 규제 개혁(放管腹), 창업창신 및 유연취업 촉진 등 정책과 농민공, 대졸자 등 중점 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

③ 취업서비스 혁신, 연이은 대규모 온라인 채용 주간 운영, 대규모 직업 훈련 지원 등 취업지원

④ 취업우선의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와 범정부적 협력, 해고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취업우선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높은 관심

○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복잡하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 우선 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하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六保, 六穩”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

①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연계

- 취업 지향적 거시경제 운영, 고용능력이 큰 산업 우선 발전 지원, 포괄적이고 신중한 감독 실현(예 : 취업흡수능력이 높은 기업 현장 법 집행 면제 등), 신산업·신업태 발전, 다채널 유연취업 장려 등
- “중국 창업대회”(11월, 강서성) 등 다양한 창신창업을 촉진하는 행사를 통해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을 통한 고용촉진 극대화

② 취업지원 정책의 지속 추진 및 감세 및 감면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과 이를 통한 감원방지 및 고용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강화

③ 농민공, 대졸자, 빈곤층, 퇴직어민 등 핵심계층 및 취업곤란계층의 조속한 취업 지원

④ 공공취업서비스 역량 강화, 생방송 채용박람회, 특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채용 서비스 제공. 12월 광저우 개최 예정인 제1회 전국직업기능대회의 성공적 개최

⑤ 고용통계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 대응

□ 코로나19 상황,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효과(凤凰卫视)?

○ 기업 등 시장주체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의 보고로서, 금년 초부터 시장 주체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지원내용은 降、返、补、拓、创로 요약)

① 기업 부담 3개(양로, 실업, 공상) 사회보험료 감면(중소기업은 12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건설공사 농민공임금보증금 납부 유예(降)

- ② 감원율이 적은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반환, 9월까지 564만개 기업, 850억 위안 반환, 1.4억명 근로자 수혜(返)
- ③ 이미 지방정부별 고용보조금 제도 목록을 공표(적시 수정 공표).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인턴쉽 보조금, 직업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으로 638억 위안 지출(补)
- ④ 이미 국무원 발표, 유연취업 활성화 의견을 통해, 유연취업자(자영업, 시간제, 플랫폼 고용 등)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특정 수수료 면제, 부동산 임대료 인하, 창업 공간 무료 제공 등 정책 시행(4免 정책)(拓)
- ⑤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신업태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창신창업 환경 최적화, 개인별 창업담보대출 한도 상향(20만 위안)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범위 포함,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고취 행사 등 혁신 잠재력 발산을 통한 창업 촉진(创)

□ 대졸자 취업 현황 및 인사부 지원(CNBC)?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인력수요 감소, 채용지원, 오프라인 취업 제한 등에 따라 대졸자 취업에 많은 어려움 직면, 인사부는 취창업 촉진 등 일련의 정책 추진 및 지속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시장화 및 사회화 견지 하 대졸자 고용촉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지원내용은 畅通一条渠道, 强化四项服务로 요약)
- 먼저 지난 7월에 대졸자에 서한 발송을 통해 전국적인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서비스 지원내용을 안내, 9월에는 원클릭으로 대졸자에 특화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신 취업지원 통합 플랫폼(小程序) 구축
- 인사부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대졸자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강화
 - ① 국유기업 및 공공기관(事業單位) 채용규모 확대, 기층 사회적 일자리(3支1扶 등) 규모 확대, 석사 및 편입(專升) 규모 확대, 대졸자 취업 중소

기업 지원, 창업 및 유연취업 지원 →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280만명 대졸자 취업 흡수

- ② 온라인 “일백일 천만 일자리 캠페인(百日千萬)”을 기반으로 대졸자 취업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출시(이 플랫폼을 통해 매일 평균 26만 개 일자리 정보 제공). 또한, 오프라인으로 지역별로 민간기업 채용주간, 대중도시 연합 채용행사 등 다양한 특별 채용 활동 전개(누계 150만개 일자리 정보 제공), 50회 이상 권역별 순회 채용박람회 개최
- ③ 대졸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100여개의 온라인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설. 100만 청년 직업훈련 캠페인 전개, 신직업훈련을 통해 졸업생 기술·기능 향상. 인턴십 규모 확대를 통해 대졸자 실무경험 제고(현재까지 34만명 인턴십 참여)
- ④ 빈곤 가정 대졸자 및 무(零)취업 가정 대졸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현재까지 150만 빈곤졸업생 및 호복성 대졸자 대상으로 1차성 취창업 보조금 지원, 호복성 대졸자에 특화된 80만개 일자리 제공

○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대졸자 취업상황이 개선.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9월 20-24세 이상 대졸자 조사실업률이 전월보다 2.4%p 하락

□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의 효과(人民日报)?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특히,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월 기업부담 3개 사회보험료(양로, 실업, 공상) 단계적 감면 정책 발표, 6월에는 감면정책을 12월까지 연장 발표(대기업은 6월). 또한, 2020년 개인 양로보험료 산정 기수의 하한 조정을 잠정적으로 금지, 금년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 연기 허용(내년에 추납 가능)

○ 이러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인하 등의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 기업재개 및 생산 재개에 큰 기여

- 9월말 현재, 3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1,129.9만개 기업에 9,107억 위안 보험료 절감에 기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에 따른 절감액 616억

위안, 또한 각종 사회보험요율 인하(양로보험 16%로 인하, 실업·공상보험료 인하 등 降底費率減收) 2,322억 위안 등 일련의 기업 부담 사회보험 감면·인하 정책으로 기업비용 누계 1조 2,045억 위안 감소

- 이러한 사회보험 감면 정책은

- ① 외부 리스크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② 매년 전년도 취업자 평균임금에 따라 조정되는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하한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 및 기업의 보험료 지급 부담 경감. 어려움에 처한 유연취업자에게 올해 보험료 납부를 연기하고 내년도에 추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
- ③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전례없는 높은 강도. 2015년 이래 6차례 사회보험료 인하정책 시행(41%→33.95%)으로 감면된 보험료 총액은 1조 위안으로 올해 도입된 감면 정책으로 인한 감면총액이 총 1조 6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농민공 취업 지원정책(中国新闻社)?

○ 농민공은 중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자 핵심 고용 그룹으로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이동제한으로 고용압력이 가중

- 인사부 등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농민공 취창업 특별대책을 마련, 농민공 고용안정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련의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3분기 말 도시취업 농민공은 1억 7,900만명으로 2분기보다 200만명 증가

○ 그간 추진한 농민공 취창업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코로나19 기간 특별열차 등을 편성, “점대점(点對点) 방식의 도시 지역 기업 복귀를 지원 → 600만명 농민공 도시 지역으로 수송

- ② 전자상거래 등 지역 특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 공익성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현지농민공 또는 도시 지역 일자리 감소에 따라 고향으로 복귀한 농민공 대상 현지(고향) 취업 지원
 - ③ 농민공 거주 지역에서 평등한 고용서비스 제공, 거주 또는 사회보험 가입 지역에서 실업등기 허용 및 실업보험 지급 대상 확대, 춘계채용주간(春風行動), 1백일천만명 일자리 캠페인 등 및 오프라인 채용활동을 통해 일자리 기회 제공
 - ④ 농민공 대상 취업훈련(以工代訓), 특정 직위 또는 긴급결원 직위 대상 특별훈련, 직무전환, 창업 훈련 등 직업훈련 지원 → 3분기, 연인원 500만명 농민공 직업훈련 수혜
 - ⑤ 농민공 체불임금 근절 및 노동분쟁 합리적 처리 등 권익 보호 → 3분기, 지방노동당국을 통해 23.7만명의 농민공 대상 29.4억위안 상당 체불임금 지급 지원
- 농민공 중 특히 열악한 빈곤 노동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 → 9월 말 현재 빈곤 노동인력의 도시 취업인원이 2,934만명으로 전년수준을 초과 달성
 -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 양로보험 재정 및 정상적인 연금 지급에 대한 영향(中央广播电视总台央广)?
 -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사회보험 기금수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향후 양로보험 기금 및 급여 지급에 큰 영향이 없음.
 - 9월말까지 절감된 사회보험료 감면 규모는 1,245억 위안 중 양로보험 부분은 1,014억 위안(전체 84.1%)에 달함.
 - 전반적으로 9월 말 현재 도시지역 양로보험 가입자수는 2억 8,635명, 퇴직인원은 1억 659만명이고, 보험료 총수입은 2.1조 위안, 급여 총지출은 2.8조 위안, 누적 기금 잔액은 4.5조 위안으로 국가적으로 기금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역별 보험 수지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

- 이러한 지역별 보험 재정 수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① 올해 기업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제금(中央調劑金)(지역간 연금보험 재정 불균형 해소) 비율을 4%로 인상, 올해 중앙조제금 기금규모는 1,768억 위안, 이미 3분기까지 배정된 1,352억 위안 중앙조제금 배정 완료(광둥, 북경 등 7개 지역 연금 지급 부족분 총당)

-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재정부)는 지방양로보험 특별회계로 5,800억 위안을 지원, 특히, 중서부 지역 및 노후산업단지 지역의 연금 지급에 총당

② 26개 쑤에서 양로보험기금 성단위 통합관리 시행(나머지 5개 지역도 올해 연말까지 완료 예정)

□ 13.5(十三五) 계획 기간 고용 측면 성과(中国日报)?

○ 13.5 기간은 취업 정책 추진에 있어 특별한 기간 → 가혹하고 불확실한 대내외적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의 철학과 취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고용안정 유지에 기여

○ 13.5 기간 고용분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고용규모 지속 확대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매년 1,300만 개를 초과, 누적 6,000만명 초과. 도시지역 조사실업률 및 등기실업률도 낮은 수준 유지

② 고용구조 최적화

- 산업별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2019년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47.4%로 12.5계획이 종료된 2015년에 비해 5%p 증가

- 또한, 도시 지역의 고용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2019년 도시지역 고용비율은 57.1%로 2015년에 비해 4.9%p 증가. 지역별로도 중서부 지역 노동자들의 현지 취업과 귀향 창업이 크게 늘어나 지역별로도 균형

③ 고용의 질도 향상

-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 현재까지 전국 기능노동력은 약 1.7억명
- (임금 측면) 2016-2019년 기간 전국 도시지역 비사업단위(국유기업, 집체기업, 외자기업 등) 취업인원의 평균임금은 매년 9.9% 인상
- (근로자 권익 측면) 2019년 말 전국 기업 노동계약 서면 체결율은 90% 이상
- 동 기간 사회보험 가입 범위 확대 및 보호 수준도 향상

④ 농민공, 대졸자 등 핵심그룹의 고용 안정

- 2016년 이후 대졸자는 매년 큰 폭의 증가세에서 불구(총 4천만명 이상), 고용사정은 전반적으로 안정. 2019년 농민공은 2억 9천명 초과
- 동 기간 실업인원 2,500만명 이상 재취업 지원, 취업곤란인원 800만명 재취업, 철강·석탄산업 종사자 120만명 직종전환 재취업 지원. 빈곤 노동력 2,934만명 도시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 퇴치에 기여

⑤ 취업 정책 및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발전

- 매년 취창업 종합보고서 발간,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안정 관련 일련의 정책과 조치 발표 등 취업우선 정책 시스템 지속적 개선
-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취업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매년 8천만명 노동자에게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 서비스 제공

⑥ 창업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

- 규제개혁을 통한 창업 및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개선, 기업가정신 고양 및 혁신 창업 환경 조성. 이에 따라 새로운 취업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범, 새로운 고용 성장을 주도

○ 13.5 기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14.5 계획 마련

《13.5기간 취업보조금 예산》(10.27, 央视网 보도)

- 2016-2019 기간 중 전국적으로 3,109.4억 위안 상당 취업보조금 지원(연평균 4.2% 성장), 이 중 중앙 재정은 1,199.2억 위안으로 전체 61.7% 차지
 - 2020년은 예산 기준으로 1,074억 위안, 이 중 중앙 재정은 547억 위안, 주로 사회보험 보조금,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 인턴보조금, 구직창업보조금 등으로 사용
- 일반재정 이외 실업보험기금, 직업훈련자금(职业技能提升行动资金), 산업체 구조조정자금(工业企业结构调整奖补资金) 등을 통해서도 각종 취업안정 보조금 지원(예, 2019년 실업보험 기금에서 1,000억 위안을 활용하여 대규모 직업훈련 시행)
- 2016-2020 기간 중 전국 사회보장과 취업 부문 지출 규모는 13.5조 위안으로 연평균 10.5% 증가(일반재정 예산 증가율 7.2%)

붙임 : 국무원 브리핑(중문). 끝.

国新办举行稳就业和减免社保费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www.scio.gov.cn

2020-10-28 来源：国新网

国新办新闻局局长、新闻发言人胡凯红（徐想 摄）

胡凯红：

女士们、先生们，大家上午好。欢迎出席国务院政策例行吹风会。今天我们请来了人力资源社会保障部副部长李忠先生，请他为大家介绍稳就业和减免社保费有关情况，并回答大家关心的问题。出席今天吹风会的还有人力资源社会保障部就业促进司司长张莹女士，养老保险司司长聂明隽先生。首先，我们有请李忠副部长作介绍。

2020-10-28 10:00:34

人力资源社会保障部副部长李忠（徐想 摄）

李忠：

各位媒体朋友，大家好。很高兴出席今天的政策吹风会，在这里又见到很多新老朋友，借这个机会，感谢大家一直以来对人力资源社会保障工作的关心支持。今天，主要向大家介绍稳就业和降低社保费有关情况及实施成效。

今年以来，受新冠肺炎疫情影响，稳就业任务异常艰巨繁重。党中央、国务院对此高度重视，把就业放在“六稳”“六保”首位，强调要实施好就业优先政策，全面强化稳就业举措。人力资源社会保障部会同有关部门坚决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出台了一系列政策措施，援企、减负、稳岗、扩就业并举，努力保住重点群体就业，稳住就业基本盘，确保就业局势总体稳定。

今年1—9月，城镇新增就业898万人，已经完成全年预期目标任务的99%。9月份，全国城镇调查失业率5.4%，符合6%左右的预期调控目标。采取的举措可

以概括为五个方面：

一是稳定现有岗位。通过阶段性减免三项社会保险费、缓缴社会保险费、失业保险稳岗返还、给予吸纳补贴和见习补贴等政策措施，支持稳企业保就业。特别是帮扶中小微企业渡过难关，稳定就业存量。截至9月底，三项社会保险费共减免9107亿元，缓缴616亿元，降低费率减收2322亿元，发放失业保险稳岗返还850亿元，支出就业补贴638亿元，累计让企业直接受益超过1.3万亿元，实实在在地为企业减轻了负担，稳住了就业岗位。前一段时间，国务院开展了第七次大督查，我带第七组到了福建，在地方和企业、和群众作了一些深入的交流，大家反映，这方面的政策落实的非常好，企业和群众很有获得感。

二是增加就业空间。提高创业担保贷款额度，扩展享受范围。上半年创业担保贷款余额1726亿元，同比增长34.8%，有力地支持了就业创业工作。加大对劳动者平台就业扶持力度，取消涉及灵活就业的行政事业性收费，支持多渠道灵活就业。

三是保障重点就业。在高校毕业生就业方面，拓宽就业渠道，实施就业创业推进行动，提供不断线就业服务，高校毕业生就业形势总体平稳。在农民工方面，多措并举促进外出务工和就地就近就业，落实常住地公共就业服务。截至三季度末，外出务工农民工1.79亿人，较二季度末增加200万人，贫困劳动力外出2934万人，是去年年底的107.5%。在促进下岗失业人员再就业方面，开通线上失业登记，提供“一站式”就业服务，1—9月，累计帮扶353万失业人员实现再就业。

四是促进供需对接。加大职业技能培训力度，深入推进职业技能提升行动，实施“互联网+职业技能培训计划”，实施就业创业服务攻坚季行动，创新开展大规模线上招聘，接续组织春风行动，百日千万网络招聘、民营企业招聘月等活动，累计发布岗位信息千万人次。这些措施有效地促进了劳动力市场供需匹配。

五是实施困难帮扶。动态调整就业困难人员认定标准，充分发挥公益性岗位的兜底作用，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开通线上失业保险待遇申领平台，加强与低保、社会救助衔接，切实保障失业人员的基本生活。

在各方共同努力下，稳就业政策落地见效，重点群体就业得到较好保障，就

业大局总体稳定。下一步，我们将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全面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分类指导、精准施策、持续发力，确保完成全年就业目标任务、确保就业大局稳定。

下面我和我的同事乐意回答大家的提问。谢谢。

2020-10-28 10:05:33

胡凯红：

谢谢李忠副部长，下面开始提问。

2020-10-28 10:09:29

中央广播电视总台央视记者提问（刘健 摄）

中央广播电视总台央视记者：

刚才李忠副部长提到，前三季度城镇新增就业达到898万人，完成全年预期目标任务的99%。请问，当前就业形势的总体状况如何，在疫情冲击之下，我们如何完成以上的目标任务？下一步，又有何打算？谢谢。

2020-10-28 10:13:57

李忠：

感谢您的提问。综合统计监测和调研情况看，当前就业形势可以用12个字来概括，就是“总体平稳、逐步回暖、好于预期”。主要体现在三个方面：

“一增、一降、一升”。“一增”是指城镇新增就业稳步增长。1—9月，累计实现城镇新增就业898万人，接近完成900万人的预期目标任务。当然完成之后，我们还会再努力，争取实现更多的城镇新增就业。

“一降”，是指调查失业率逐步下降。2月份全国城镇调查失业率达到6.2%的历史最高值，随后波动下降至9月份的5.4%，低于6%左右的预期调控目标。

“一升”是指劳动力市场活跃度上升。人力资源市场机构网络招聘的数据显示，疫情发生后，市场需求急剧下滑，招聘需求人数在一季度同比减少了25.9%，但目前已经由负转正，从三季度的数据看同比增加了1.1%，虽然增的不多，但还是有标志性的意义。

今年以来，在新冠肺炎疫情突发多变、国际经贸环境趋紧、经济下行压力加大等风险挑战交织叠加情况下，就业形势能够保持总体稳定，成绩来之不易。这根本在于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对就业工作高度重视和坚强领导。具体来说，是多种因素综合作用的结果。

一是得益于经济恢复的基础效应。我国疫情防控取得重大战略成果，复工复产全面推进，经济运行逐季好转，主要指标恢复性增长，这为就业大局稳定提供了有力支撑。

二是得益于稳就业政策的对冲效应。力度空前的减税降费稳住了企业、保住了就业岗位。持续深化的“放管服”改革，鼓励创业创新，支持发展灵活就业和新兴就业形态，拓展了就业增长的新空间。聚焦高校毕业生、农民工等重点群体，分类精准施策，强化兜底保障，这些对重点群体的扶持政策，稳住了就业的基本盘。

三是得益于服务培训的助力效应。创新开展不间断的就业服务，网上春风行动、百日千万网络招聘专项行动、金秋招聘月这些活动接连不断开展。特别是在疫情比较严重的时刻，线下招聘受阻，这些网络招聘应该说发挥了非常重要的作用，提升了市场热度，加之深入推进职业技能提升行动，大规模开展职业培训，也缓冲了失业风险。

四是得益于社会各方面的合力效应。面对困难挑战，各地区、各部门担当作为，狠抓落实，这点我带队去地方就体会非常深刻，今年在这种特殊情况下，各地区、各部门确实是从大局出发，出台一系列政策，狠抓落实，担当作为。所以，这是一个很重要的方面。还有很多企业发扬社会责任，尽量不裁员、少裁员，广大劳动者不等不靠，自主就业创业。这里，尤其还需要感谢在座各位新闻界的朋友，对就业工作高度关注，这期间，深入解读、广泛传播就业政策，应该说你们的工作为促进就业发挥了很好的作用，也营造了良好的促进就业氛围。

我们也要看到，当前疫情形势依然复杂，不确定因素增多，重点群体就业任务十分艰巨，稳就业、保就业还面临许多新的挑战。下一步，我们将按照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的要求，全面强化稳就业举措，具体考虑从几个方面着力：

一是促进经济增长带动就业。推动加强就业优先导向的宏观调控，支持就业容量大的产业行业优先发展。实行包容审慎监管，支持新产业新业态发展，鼓励多渠道灵活就业。举办“双创周”等系列活动，我们部专门举办“中国创翼”大赛，这是第四届，11月中旬在江西景德镇举办。通过多种活动，来促进就业创业服务经验交流，优化创业环境，发挥创业带动就业的倍增效应。

二是落实完善就业政策扩大就业。包括前面谈到的减税降费政策，我们要进一步加大落实力度，确保各项纾困措施直达基层和企业，鼓励企业不裁员、少裁员。同时根据形势变化，及时研究完善新的政策举措，稳住市场主体，稳定和扩大就业。

三是突出重点群体保障就业。以实施就业创业服务攻坚季行动为引领，集中帮扶离校未就业的高校毕业生尽快就业，推动农民工有序外出就业和就地就近就业，加大贫困劳动力就业帮扶力度，统筹做好退捕渔民、困难人员等就业工作。

四是优化服务培训促进就业。加强基层公共就业服务能力建设，开展直播带岗、专场招聘、人力资源服务行业促就业等多种形式的供需对接服务。前一阵去重庆，当地人社局搞了直播带岗，促进有序对接非常有效果。深入实施职业技能提升行动，举办全国第一届职业技能大赛，12月份在广州举办，通过这些活动营造良好氛围，促进就业。

五是防范化解风险稳定就业。密切跟踪经济和就业形势变化，加强就业统计监测和分析研判，同时也做好相关风险应对准备，通过一系列措施来确保就业大局稳定。谢谢。

2020-10-28 10:16:26

凤凰卫视记者提问（刘健 摄）

凤凰卫视记者：

我们也知道今年以来，很多企业的生产经营都受到了很大的冲击，请问，人社部在支持市场主体稳岗扩岗方面采取了哪些措施，实施的成效具体如何？谢谢。

2020-10-28 10:20:01

李忠：

上亿的市场主体是创造岗位、吸纳就业的最大载体，企业在，岗位在，就业就在，今年以来，人力资源社会保障部积极会同有关方面，一手抓企业纾困稳岗，一手抓激发市场活力扩岗，多措并举稳定和扩大就业空间。支持的举措概括一下，就是：降、返、补、拓、创等几个方面。

一是“降”，就是加大降的力度。阶段性减免养老、失业、工伤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其中，中小微企业免征政策延期到年底。允许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企业缓缴社保费，缓缴农民工工资保证金。

二是“返”，就是扩大返的范围。放宽中小微企业失业保险稳岗返还政策标准。截止9月底，共向564万户企业发放失业保险稳岗返还850亿元，惠及职工1.4亿人。

三是“补”，就是落实补的政策。及时公布就业补贴政策清单，我们把就业补贴相关的清单专门列出来，通过媒体向社会广泛宣传，让市场主体和群众充分了解。同时，我们公开线上申领渠道，加速企业吸纳重点群体就业的吸纳补贴、见习补贴、以工代训补贴等政策落实。截至9月底，全国共支出就业补助资金638亿元。

四是“拓”，就是创新拓的举措。国务院办公厅出台支持多渠道灵活就业意见，推出免营业执照、免部分收费、减免房产租金、免费提供经营场地的“四免”政策，促进多渠道个体经营、非全日制就业和平台就业，劳动者灵活就业的渠道更加多元、更加畅通。

五是“创”，就是释放创的潜力。包括推进“放管服”改革，特别是对新产业、新业态实行包容审慎监管，优化创新创业环境。加大创业担保贷款政策的支持力度，将个人贷款额度提高到20万元，范围也扩展至平台从业人员。近期，正在开展“双创周”系列活动，相关部门牵头的专项活动都在密集地开展，在全社会掀起了一股新的双创浪潮。

下一步我们将继续会同有关部门，加速各项稳岗扩岗政策的落实落地，全力以赴帮助市场主体纾困稳岗，千方百计帮助他们扩大发展空间，拓展就业岗位，让就业增长的基础更稳、更牢。谢谢。

2020-10-28 10:26:32

CNBC记者提问（刘健 摄）

CNBC记者：

请问2020年大学毕业生的就业情况如何？他们在职位方面有遇到什么样的困难，人社部采取什么样的措施去支持？谢谢。

2020-10-28 10:32:02

李忠：

谢谢你的提问。这个问题请我们就业促进司的张莹女士来回答。

2020-10-28 10:37:33

人力资源社会保障部就业促进司司长张莹（徐想 摄）

张莹：

感谢您的提问。高校毕业生就业关系着个人的前程，家庭的幸福，也关系着

经济的高质量发展。今年受疫情影响，2020届高校毕业生就业面临着许多困难，市场需求下滑，招聘延后，求职也遇到了新的阻力。党中央、国务院对此十分牵挂，作出了一系列部署和安排。人力资源社会保障部会同有关部门狠抓贯彻落实，实施了就业创业促进等系列行动，提供不断线就业服务，促进市场化社会化就业。最重要的工作特点，就是“畅通一条渠道，强化四项服务”。

畅通一条渠道，就是畅通毕业生的求助通道。7月份，我们向社会发出了公开信，广泛提示高校毕业生可以享受的基本公共就业服务事项和求助通道。9月份，我们上线了全国统一的求职登记小程序，支持高校毕业生一键直达公共就业服务。

强化四项服务，主要是以下四个方面：一是强化岗位拓展。通过政策激励，各方尽职尽责，扩大国有企事业单位招聘规模，扩大基层项目招募规模，扩大研究生和专升本招生规模。同时支持中小微企业更多吸纳高校毕业生就业，支持高校毕业生自主创业和灵活就业。其中，目前公共部门吸纳高校毕业生就业已经达到了280万人。

二是强化招聘组织。重点是搭建常态化的服务平台，加密组织招聘活动，在线上我们继前期的“百日千万”招聘活动的基础上，推出了高校毕业生就业综合服务平台。现在在这个平台上，日均发布岗位信息26万个。线下正密集开展民营企业招聘月、大中城市联合招聘等系列的专项活动，已累计发布招聘岗位信息150万个。同时，已安排跨区域的巡回招聘会50场次。

三是强化能力提升。我们上线了百节职业指导公开课，增强毕业生的求职能力。启动百万青年技能培训行动，拓展新职业培训，以增强毕业生的技术技能。我们扩大了就业见习规模，以增加毕业生的实践经验，今年已经有34万青年参加就业见习活动。

四是强化困难帮扶。主要是通过优先帮扶和政策倾斜，助力建档立卡贫困家庭毕业生、零就业家庭毕业生尽快就业。同时，帮助其他困难毕业生得到就业领域的全面帮扶。目前，已经向150万困难毕业生和湖北毕业生发放了一次性求职创业补贴，向湖北高校毕业生投放了80万个岗位信息。

在各方共同努力下，目前高校毕业生就业形势总体平稳，压力较前期有所减

轻。根据统计局的数据，9月份，20—24岁大专及以上学历人员的调查失业率较上月下降了2.4个百分点。与此同时，确实还有很多高校毕业生仍然在求职，2021届的高校毕业生也将进入就业市场，所以我们还将继续努力，加力推进政策落实，扩招落地，启动创业支持，见习推进、“就业云服务”等系列活动，为毕业生更好提供品质化就业服务，尽最大努力促进高校毕业生就业创业，助力他们在各行各业施展才华、成就梦想。谢谢。

2020-10-28 10:41:53

人民日报记者提问（刘健 摄）

人民日报记者：

今年国家出台了阶段性减免企业社保费的相关政策，请问现在这些政策执行效果怎么样，呈现哪些特点？谢谢。

2020-10-28 10:45:00

李忠：

这项工作具体是养老保险司聂明隽司长负责，请他回答这个问题。

2020-10-28 10:46:29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养老保险司司长聂明隽（徐想 摄）

聂明隽：

按照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为应对新冠疫情对企业生产经营的影响，帮助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渡过难关，今年2月，人社部会同相关部门出台了阶段性减免企业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三项社会保险费的政策。6月份，根据国内外疫情防控形势，将阶段性减免政策期限进行了延长，其中将减半征收政策延长到6月底，将免征社保费政策延长到今年年底。同时，新政策规定，2020

年个人缴纳养老保险费基数下限可以暂时不调整，同时规定今年缴费有困难的灵活就业人员，可以自愿暂缓缴纳养老保险费，明年再进行补缴。

新政策出台以后，得到了迅速贯彻落实，对纾解企业困难、帮助企业复工复产起到了非常积极的作用，深受企业欢迎和好评。截至9月底，阶段性减免三项社会保险费政策惠及企业1129.9万户，减免额9107亿元，缓缴社会保险费616亿元。此外，降低社会保险费率政策减少企业缴费2322亿元，合计减轻企业成本12045亿元。归纳起来，今年出台的减免社保费政策有以下三个特点：

一是注重分类施策。阶段性减免政策的出台，是为了帮助企业渡过难关，根据大中小企业抗风险能力的不同，在享受政策的力度和时间上有所区别，重点向抗风险能力比较弱的中小微企业倾斜。

二是注重精准发力。特别是在下半年，在纾解企业困难的同时，将参加社会保险的困难人群也纳入到了政策范围。比如目前按照缴费基数下限来缴纳养老保险费的主要是比较困难的中小微企业及其职工，还有大部分灵活就业人员，新政策规定，今年缴费基数下限不动，可以帮助这些企业单位和个人减少缴费压力。正常情况下，社保缴费基数上下限每年会根据上年度就业人员平均工资增长情况进行调整，今年允许下限不调整，减轻了他们的缴费压力。另外，灵活就业人员有困难的，今年可以自愿暂缓缴费，明年再进行补缴，这也是一项政策突破，会相应减轻这些困难灵活就业人员的缴费压力。

三是力度空前。我这里向大家报告一组数据：2015年以来，我们共6次下调了企业社保费率，总费率由41%下调到33.95%，这6次下调共减免企业缴费近万亿元。今年出台的减免政策，一年预计会减少企业缴费1.6万亿元，力度是空前的，对助力企业走出困境、稳定和扩大就业起到十分重要的促进作用。

下一步，我们将继续加强对落实减免企业社保费政策的指导，使企业和个人受益更多，得到更多实惠，增添更多活力。谢谢。

2020-10-28 10:47:05

中国新闻社记者提问（刘健 摄）

中国新闻社记者：

请问为了克服疫情的影响，今年以来，在促进农民工就业方面采取了哪些措施？谢谢。

2020-10-28 10:50:41

张莹：

农民工是我国产业工人的重要组成部分，也是就业工作的重点群体。今年在疫情影响下，有一部分农民工外出务工受阻，就业压力增大。前期，经国务院同意，人力资源社会保障部会同15个部门出台了促进农民工就业创业的专项政策文件，同时也开展了系列就业和培训方面的服务活动，全力稳定和扩大农民工就业。截至三季度末，外出务工的农民工有1.79亿人，较二季度末增加了200万人。具体来说，我们主要采取了以下措施：

一是引导有序外出。加大岗位归集发布力度，畅通输入地、输出地用工信息的对接，引导农民工有序外出务工。特别是在疫情期间，建立了跨地区、跨部门的“点对点”返岗复工协作机制，帮助农民工“出家门、上车门、进厂门”，累计输送农民工超过600万人。

二是支持就地就近就业。引导回归农业解决一批就业，实施以工代赈项目吸纳一批就业，创新业态发展拉动一批就业，主要是现在有很多电商等新业态也在深入农村、深入乡镇。扶持返乡创业带动一批就业，开发公益性岗位安置一批就业。通过多种途径，为农民工创造更多的就地就近的就业机会。

三是优化就业服务。重中之重是落实平等就业服务，农民工可以在就业地、参保地进行失业登记，也相应扩大了失业保险发放范围。优化招聘服务，持续开展线上“春风行动”，“百日千万”网络招聘等专项服务活动，并积极推动了线下招聘活动的开展。

四是强化技能提升。实施了农民工稳就业职业技能培训计划，大力开展以工代训、定向定岗培训、急需紧缺职业专项培训、职业转换培训和创业培训，满足农民工多元化的技能提升需求。前三季度，已培训农民工500万人次。

五是保障合法权益。大力推进根治欠薪，妥善处理劳动争议，切实维护农民工的劳动保障权益。前三季度各级劳动保障监察机构共为23.7万农民工追发工资等待遇29.4亿元。

在做好农民工工作的过程中，我们始终将促进建档立卡贫困劳动力就业摆在突出位置，对贫困劳动力优先组织外出，优先稳定岗位，优先提供转岗服务，优先做好返乡承接，确保贫困劳动力外出务工规模不低于去年。截至9月底，贫困劳动力外出务工已经达到2934万人，超过去年的总规模。

农民工就业关系着经济发展、社会稳定和民生改善，我们将持之以恒，多措并举，真抓实干，尽最大努力稳定和扩大农民工就业。谢谢。

2020-10-28 11:00:30

胡凯红：

最后两个提问。

2020-10-28 11:02:04

中央广播电视总台央广记者提问（刘健 摄）

中央广播电视总台央广记者：

今年减免社保费的力度很大，想问基金的运行情况怎么样？另外，大家很关心会不会影响养老金的按时足额发放？谢谢。

2020-10-28 11:05:54

李忠：

谢谢。养老金按时足额发放是社会各界普遍关心的问题，前面我也谈到了，今年面对严峻复杂的形势，我们全面强化稳就业举措，其中一个重要举措，就是在社会保险方面出台了“免、减、缓、返、补”等一系列援企减负稳岗的政策措

施，帮助市场主体克服暂时的困难，对稳企业、稳岗位发挥了重要作用。我们在出台这些政策的时候，对社会保险基金的收支状况已经作了充分预判和精确测算，能够确保养老金的按时足额发放。这点请大家放心。具体情况，请养老保险司聂明隽司长给大家作进一步介绍。

2020-10-28 11:10:23

聂明隽：

首先向大家报告一组数据。刚才介绍了，到9月底，减免三项社会保险共减轻企业成本12045亿元，其中养老保险成本10140亿元，占84.1%。从企业养老保险基金实际运行情况看，在党中央、国务院的坚强领导下，得益于我们对新冠疫情的科学防控和企业快速复工复产，前三季度企业养老保险基金的运行经受了考验，总体是比较平稳的，甚至还要好于预期。到9月底，参保职工人数28635万人，比去年底相比增长了4.1%。离退休人数10659万人，与去年底相比增长了2.5%。从基金收支来看，总收入2.1万亿元，总支出2.8万亿元，基金累计结余4.5万亿元。由此可见，从总体上讲，保发放还是有比较雄厚的物质基础的，当前的问题主要是省际之间的结构性矛盾。对此，在政策实施前，就像李忠副部长介绍的，我们做了充分预计和精确测算，在保发放方面做了周全的准备和安排，主要采取以下几方面措施。

一是加大实施基金中央调节力度。今年企业养老保险基金中央调剂比例提高到4%，全年跨省调剂基金规模达到1768亿元。目前，前三个季度1352亿元的调剂基金已经全部拨付到位，广东、北京等7个省份都按时足额上解了调剂金，确保了中央调剂制度的顺利实施。此外，今年中央财政对地方养老保险专项补助资金5800多亿元，有力支持了各地，特别是中西部地区和老工业基地养老金的发放工作。另外，在一季度的调剂金实施过程中，协调提前上解了部分资金，定向增加对湖北省一季度的中央调剂拨付额。

二是加快推进基金省级统收统支工作。目前，全国已经有26个省份和新疆兵团实现了基金省级统收统支，为确保全省发放提供了有力保证，其他五个省也正在抓紧推进前期准备工作，确保年底前完成。同时，我们正在会同相关部门对实现统收统支的省份一一进行验收，确保省级统筹工作质量，同时为全国统筹打下基础。

三是建立定期调度机制。密切关注各地企业养老保险基金的运行情况，对全年各省保发放的资金进行细致调查，研判发放风险，同时帮助协调调度资金。

总体上看，绝大部分省份保发放没有问题，个别保发放有困难的省份，在中央的帮助下也能够确保发放。下一步，我们一方面指导各地把阶段性减免政策进一步落实落细，另一方面加强对各地基金情况的监测，确保养老金发放工作万无一失。谢谢。

2020-10-28 11:15:46

胡凯红：

最后一个提问。

2020-10-28 11:20:09

中国日报记者提问（刘健 摄）

中国日报记者：

经过“十三五”时期的发展中国的经济实力和科技实力都飞跃式的上升，请问在“十三五”规划以来，中国就业方面有取得哪些成效？谢谢。

2020-10-28 11:24:27

李忠：

谢谢你对“十三五”时期中国就业工作成效的关注。即将过去的“十三五”，是我国就业工作不平凡的五年。面对严峻复杂的国内外形势，面对艰巨繁重的就业任务，我们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实施就业优先政策，推动就业工作取得重大进展，保持了就业局势总体稳定。主要表现在这么几个方面：

第一，就业规模继续扩大。2016年到2019年，城镇新增就业每年都保持在1300万人以上，目前，累计已超过6000万人。同时，全国城镇登记失业率和调查失业率均保持在较低水平。

第二，就业结构持续优化。从三次产业结构看，第三产业就业规模继续扩大。2019年三产就业人员占比47.4%，比“十二五”末增加了5个百分点。从城乡结构看，城镇就业比重进一步上升，2019年城镇就业人员占比57.1%，也比“十二五”末提高了4.9个百分点。从区域结构看，中西部地区劳动者就地就近就业和返乡创业增多，区域就业结构更趋均衡。

第三，就业质量进一步提升。关于就业质量，可以从劳动者素质、工资收入、权益保护、社会保障等几个方面评价。从劳动者素质看，目前全国技能劳动者总量约1.7亿人。从工资看，职工工资收入合理增长，2016年-2019年全国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年均增长9.9%。从劳动权益保护看，2019年末，全国企业劳动合同签订率达到90%以上。同时，“十三五”期间社会保险覆盖面在持续扩大，保障水平也在逐步提高。

第四，重点群体就业基本稳定。2016年以来，高校毕业生的人数连年增长，不断创新高，这几年总量超过了4000万人，就业水平总体保持稳定。农民工的总量也在继续扩大，2019年末，农民工总量超过2.9亿人。对困难群体的帮扶也在加强，这期间，累计帮助失业人员再就业超过2500万人，就业困难人员就业800多万人，分流安置钢铁、煤炭行业去产能职工120多万人，这为供给侧结构性改革发挥了重要作用。还有，全国外出务工贫困劳动力超过2900万人，前面我也谈过，是2934万人，为脱贫攻坚作了很大的贡献。

第五，就业政策服务体系丰富发展。每年制定出台就业创业的综合性文件，推出一系列减负稳岗扩就业的政策举措，就业优先政策体系在不断完善，覆盖城乡的公共就业创业服务体系逐步健全，每年为8000万劳动者提供职业指导、职业介绍等服务，为5000万用人单位提供用工招聘的服务。

第六，创业带动就业能力显著增强。“放管服”改革不断深化，营商环境持续改善，大众创业、万众创新的良好局面逐步形成。新登记市场主体快速增加，新就业形态不断涌现，成为拉动就业增长的新引擎。

下一步，我们将进一步梳理总结“十三五”时期就业工作的成效和经验，为做好“十四五”时期的就业工作打下坚实的基础，努力实现更加充分、更高质量的就业。谢谢。

2020-10-28 11:37:55

胡凯红:

今天吹风会到此结束。谢谢李忠副部长、谢谢两位司长，谢谢各位。

2020-10-28 11:40:21